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 30주년 기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연설

2018년 10월 25일 (목), 18시

대전(한국)

보도유예 기한: 연설 시작

실제 발언되는 내용이 유효함

친애하는 슈투켄베르크 원장님,

친애하는 한문희 부총장님,

친애하는 코쾅 대표님,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한독포럼과 주한독일문화원의 활약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오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독일과 한국은 정치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독일문화원은 이러한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한독일문화원은 1968년 이래,
대전 분원은 30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간 대화, 시민사회적 구조의 확대,
독일어의 중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 간의 관심을
발전시키고,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어야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십 년째 한국에서
큰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한독일문화원과 한독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적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도 말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정부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교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임기 시절에도 그랬고,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현 정부는 한국의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국제정치적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다자주의, 자유무역, 개방형 시장을 추구하고
G20의 틀 안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인 관계도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과학, 문화 분야에서도 수십 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간 협력만 해도 벌써 450여 건의
협력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6천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져도 좋겠지요!

이러한 사실들은 독일과 한국이 공유하는
공통된 관심사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독일과 한국은 공통된 운명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은 40년 이상 분단의 고통을 겪었고,
다행히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밭이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헤어져 있고, 남북한 국민들 간의 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두 북한의 독재 정권으로 인한 일들입니다.

독일은 한국도 자유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운명은 독일과 한국을 이어주며,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교류해야 할 의무도 선사해줍니다.

분단의 역사에 있어 양국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들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분단의 배경에는 분명히 나치의 폭정과

독일이 발발시킨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에 대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의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분단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서독은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보였지만,

한반도에서와 같은 전쟁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서양 동맹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반대로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의 정책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광범위한
긴장완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헬무트 슈미트 총리와
헬무트 콜 총리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독일 공격에 희생되었던 동유럽의 이웃들에게
사죄한 일도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동독에 대한 서독 정책의 모토는
'접근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동독과 동유럽의 지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독이 부정이 자행되는 국가이기는 했으나,
당시 동독의 상황이 오늘날 북한의 상황과
견줄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체제의 경계를 넘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북한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들 중 하나로,

북한에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결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평화로운 해결을 이루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대화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서도
한 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올림픽의 정신이 민족간의 이해에 기여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에는 그 과정을 함께 추진해준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만남들은 정치적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에 합의했습니다.

교통로 연결,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논의,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계획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용기 있는 비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줄여가는 발걸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발걸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멀고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파트너와 이웃들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전통을 잇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길에는 정치적 뒷걸음들도

배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지키는 일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있는 길을

이어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정치가

통일 프로세스라는 막대한 도전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있어 독일은 스승이 아닌 조연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이를 위한 포럼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독포럼에서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양국 관계의 현안들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크게 유익한 일입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실습생, 대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토론 및 프로젝트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한독주니어포럼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코썹 독한포럼 독일 공동대표님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독일과 한국은 공통된 경험과 운명을 공유하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정치적 협력과 더불어 이러한 점을 통해

양국은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독일은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가난했던 한 나라가 엄청난 노력과 열심으로
몇 십 년 만에 큰 산업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문화적 및 국가적 정체성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언젠가 다시
자유와 평화 속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항상 파트너로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독포럼과
주한독일문화원의 활약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주한독일문화원과 한독포럼의
활동에 많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